

통일 대비 초등학교 교과서의 북한 민요 제재곡 개발 연구*

박 지 영**

본 연구는 통일 대비를 위해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과서와 음악교과서에 수록할 북한 민요 제재곡을 개발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현재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악교과서와 통합교과 교과서, 국립국악원 악보 자료 5권, 「북녘 땅 우리소리 악보자료집」,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북한 민요를 분석하였다. 이 중 총 10곡의 북한 민요를 선정한 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곡하였다. 그리고 악곡을 각 학년군의 수준에 맞게 배치하고 통일 교육 관련 활동을 타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 주제어: 북한 민요, 통일 대비 교육, 초등학교 제재곡 발굴

차 례

I. 서론

II. 북한 민요의 교육 현황 및 자료 검토

1.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과서와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관련 제재 분석
2. 북한 민요의 자료 검토

III. 북한 민요 제재곡 선곡 및 교육 자료 개발

1. 선곡 기준 설정
2. 제재곡의 선정 과정
3. 제재곡의 선정 결과
4. 교육용 편곡

IV. 북한 민요 제재곡의 교육적 활용 방안

1. 북한 민요 제재곡의 학년별 위계화
2. 북한 민요 제재곡의 교육 방안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박지영(2017)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요약함.

** 서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겸임교수, 수원대학교 국악과 객원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강사

I. 서론

한반도의 휴전 상태로 인한 분단 상황이 종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통일을 대비하는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2005년에 통일부에서 학교용 「통일교육 지침서」를 발간하면서 통일 교육을 강조하였고, 2011년에는 학교급별 수준에 따른 학생용 「통일교육 지침서」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 의식을 심어 주고, 평화와 통일을 일구어갈 수 있는 실천 의지와 능력을 갖추도록(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하였다.

초등학생들은 장차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로 북한을 미리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관심이 높을 경우 북한 및 북한 주민에 긍정적인 인식이 많고 통일의식이 높다(함규진 외, 2015)는 연구결과가 통일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인재와 박균열(2012)에 의하면 현장 교사들은 학교에서 통일 교육의 방법이 다양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론적인 학습보다 직접 체험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일 대비 교육은 체험 위주로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음악과에서는 북한의 음악을 학습함으로써 민족적 동질감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통일 대비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배인교(2012)는 북한이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 음악 교과서에 민요 제재곡 수가 늘어났다고 하였다. 문화유산을 선택하지 않고 계승하고자 하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선택적으로 계승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통 민요를 모두 개작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가사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악의 가치와 음악적 본질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민족적 동질감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통일 대비 교육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통일 대비 북한 음악 교육은 남한의 학생들이 북한의 음악을 친숙하게 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므로 난이도별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새로운 제재곡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교과서에 빈번하게 수록되었던 북한 관련 제재가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의 활동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 대비 교육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전통음악은 다른 어떤 문화보다 지역성이 강하다(김혜정, 2015). 그 중 민요에 내재되어 있는 토리는 언어의 사투리와 같이 지역별 특성이 분명하므로

그 지역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민요 교육으로 통일 대비를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에게 북한의 문화와 정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의 목표에 부합하고 통일 대비 교육에 효과적인 북한 민요 제재곡을 발굴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음악교과서와 2015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관련 제재의 요소 및 내용을 살펴보고 난이도에 따른 체계성과 활동 내용의 적절성을 분석하여 기존 제재곡 중 활용 가치가 높은 제재곡을 선정한다.

둘째, 「북녘 땅 우리소리 악보자료집」,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집」, 국립국악원 발간 악보자료 5권 등을 분석하여 초등학교에 적합한 북한 민요를 새롭게 발굴한다. 선정한 제재곡은 초등학교 학년군별 수준에 맞추어 교육적으로 편곡하여 단계별로 배치한다.

셋째, 새롭게 발굴한 제재곡과 교육적 활용 가치가 높은 기존 제재곡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육과정 요소와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통일 대비 교육의 활용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연구의 범위는 북한 민요로 볼 수 있는 지역과 시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북한 민요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 전해지거나 북한 현지에서 수집된 자료로 음악학자들에 의해 수집, 채록된 자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북한 민요는 행정구역상 현재 북한에 속한 지역에서 전승되고, 시기상으로는 6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조사된 북한 민요에 한정하려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직접적인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았다. 이에 주제와 관련된 통일 교육 관련 연구, 타 교과와 통일 대비 교육방안 연구, 북한 민요 관련 연구, 민요 발굴 및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북한의 국악교육 관련 연구로 확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첫째, 통일 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쟁점,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윤철기(2016, 2017), 함규진(2015), 박찬석(2017), 송명현 외(2016)의 연구에서 통일교육이 북한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고,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둘째, 타 교과 통일 대비 교육방안 관련 선행연구는 국어 · 미술 · 실과 · 도덕 등에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 볼 수 있다. 조빛차(2015), 김진아(2012), 정미경과

김유정(2008), 박찬석(2015), 고정희 외(2015)의 연구를 통해 타 교과에서도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정서적 이해에 중점을 둔 교수·학습 방안 개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북한 민요 관련 선행연구는 통일 대비 북한 민요 교육 방안 연구(김혜정, 2007)와 북한 민요의 음악적 특징에 관련된 연구(한희정, 2003)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일 대비 북한 민요 관련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으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 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들은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김영은, 2007; 류아름, 2012; 최성룡, 2011; 유지숙, 2007).

넷째, 민요 발굴 및 교육적 활용 방안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향토민요 발굴과 교육 방안 개발 연구(조경숙, 2007; 이윤정, 2015; 김현정, 2012; 강미정, 2007)였는데, 교육적 활용을 위한 수정, 편곡 등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향토민요 발굴의 선정 기준이나 편곡 기준 등의 연구 방법을 참고할 수 있었지만 북한 민요 개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섯째, 북한의 국악교육 관련 연구에는 북한의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국악 관련 제재 분석 연구가 있었다. 배인교(2012)와 김현희(2014)는 북한 교과서의 수록곡 분석을 통해 최근 민요의 수가 늘어났지만 전통 그대로 전승하지 않고 모두 개작하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분단이후 남북한 국악 교육에 차이가 있지만 국악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서적 동질성을 통해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으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통일 대비 교육 방안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초등학생들이 통일에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세대이므로 이들에게 북한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음악과에서는 북한 민요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가 두 편밖에 없어서 그 수가 부족하였다. 이 두 편의 연구도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북한 민요 제재곡 개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교육과정에 맞는 북한 민요 제재곡을 개발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 북한 민요의 교육 현황 및 자료 검토

본 장에서는 북한 민요의 교육 현황 및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합교과 교과서와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관련 제재의 현황을 알아보고 활동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 외에 현재까지 출간된 북한 민요 자료를 검토하여 새로운 악곡을 발굴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과서와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관련 제재 분석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교과서를 혼용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교과서는 5-6학년군에서 사용하고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1-2학년군, 3-4학년군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3-4학년군 교과서는 2017년 당시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분석의 기준은 수록악곡의 종류, 학년군별 위계의 적절성, 활동의 다양성 면에서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통합교과서와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민요 제재곡은 총 9곡으로 <싸름>, <풍구타령>, <우리 형제>, <금다래꿍>, <수심가>, <다리 빼기>, <돈돌라리>, <꿈대타령>, <자진 배치기>이다. 이중 <수심가>는 서도민요의 특징을 알아보는 참고 악곡으로 주로 감상활동으로 구성되어있고, <돈돌라리>도 감상곡으로 제시되어 가창 중심의 제재곡은 7곡으로 볼 수 있다.

이중 수심가토리와 시김새를 학습하기에 적합한 악곡은 <금다래꿍>, <싸름>, <자진배치기>로 볼 수 있지만 <자진배치기>의 경우 떠는 소리만 제시되어 있고 서도 민요의 특징적인 시김새인 ‘도’에서 흘러내리는 소리를 학습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심가토리와 시김새를 모두 학습하기에 적합한 악곡은 <금다래꿍>과 <싸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풍구타령>과 <꿈대타령>은 자진모리장단으로 한 배가 짧아 시김새 학습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 민요의 음악적 요소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인 3-4학년군에 준비단계의 악곡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 민요의 자료 검토

북한 민요의 자료 검토를 위해 국립국악원 발간 악보자료집 5권, 「북녘 땅 우리소리 악보자료집」(2007),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집」(2004)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립 국악원에서 발간한 악보 자료는 국립국악원에서 발간한 악보자료집 「교육용 국악표준악보」(2009), 「핑퐁 장서방」(2002), 「전래동요」(2002), 「민요 이렇게 가르치면 제 맛이 나요」(1998), 「향토민요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1999)으로 학교 교육을 위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용으로 편곡되어 있었다. 가창유희요와 가사노동요가 가장 많았으나 나머지 기능의 악곡수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장단형은 자진모리형, 중중모리형에 편중되어 있었고 장단을 알 수 없는 불규칙형도 일부 있었다. 토리는 메나리토리, 수심가토리, 난봉가토리, 경토리가 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토리를 알 수 없는 악곡도 있었다.

「북녘 땅 우리소리 악보자료집」(김영운 외, 2007) 1970년부터 1983년 사이에 북한의 음악학자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민요를 수록하고 있으며 기능, 토리, 장단형 등 분석이 완료되어 있다. 「북녘 땅 우리소리 악보자료집」을 정리한 결과 기능별로는 노동요 중 농산노동요가 가장 많았다. 토리는 경토리와 메나리토리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수심가토리와 난봉가토리로도 53곡이 정리되었다. 박자는 3소박 4박의 악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규칙박이 많았다.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의 북한 민요는 1966년에서 1970년대에 수집하였는데 토리와 장단, 출현음의 분석이 일부만 되어 있어 토리, 출현음, 장단, 기능을 나누어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 민요 발굴을 위해 검토한 자료는 국립국악원에서 발간한 악보자료집 「교육용 국악표준악보」, 「핑퐁 장서방」, 「전래동요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민요 이렇게 가르치면 제 맛이 나요」, 「향토민요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와 「북녘 땅 우리소리 악보자료집」,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집」이고 조사된 북한 민요는 총 359곡이다.

Ⅲ. 북한 민요 제재곡 선곡 및 교육 자료 개발

1. 선곡 기준 설정

북한 민요를 교육용 제재곡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곡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선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기능을 가진 악곡으로 선정한다. 김혜정(2007)은 북한 민요 교육을 위한 악곡선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그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는 악곡을 수록해야 한다고 하였다. 2009 개정 교과서를 기준으로 수록되어 있는 북한 민요의 수가 3-4학년군은 평균 1곡에 미치지 못하고 5-6학년군의 경우 평균 2곡으로 매우 적다. 그러므로 북한 민요의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곡을 선정하는 것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 지역의 특징적 음악 요소를 가진 악곡을 선정한다. 서도민요를 대표하는 토리는 수심가토리와 난봉가토리를 든다. 그 가운데 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수심가토리만을 교육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수심가토리가 잘 드러난 악곡으로 선정한다. 박자는 3소박 4박 형태가 가장 많으나, 평안도에서는 특징적으로 3소박 3박(김혜정, 2013)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심가토리의 악곡과 3소박 4박 또는 3소박 3박 형태의 박자를 가진 악곡을 북한 민요의 음악적 특징으로 보고 선곡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셋째, 초등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악곡으로 선정한다. 실제로 교육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려면 노랫말의 적절성과 가락의 복잡성, 장단의 규칙성을 갖추어야 한다. 노랫말의 적절성은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이면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락의 복잡성은 기존에 수록되어 있는 민요와 비슷한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시김새가 많지 않고, 한 음절에 가락이 많이 붙어있는 악곡도 적절하지 않다. 장단의 규칙성은 박자와 빠르기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빨라도 안 되며, 초등학교에서 보편적으로 교육되고 있는 수준의 규칙성을 가진 장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노랫말의 적절성과 가락의 복잡성, 장단의 규칙성을 갖춘 악곡을 선곡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선곡 기준은 북한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기능을 가진 악곡, 북한 지역의 특징적 음악 요소를 가진 악곡, 초등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악곡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곡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

라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곡을 찾기 어려울 경우에는 추후 편곡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 기준에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2. 제재곡의 선정 과정

선곡 기준에 맞는 악곡을 선정하기 위해 앞에서 분석한 북한 민요 자료를 재분류할 것이다. 선정의 기준은 크게 북한의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기능을 가진 악곡과 북한 민요의 특징적 음악 요소를 가진 악곡으로 구분하였고, 이 중 북한 민요의 특징은 토리와 박자 형태로 세분화하여 구분하였다.

북한의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기능을 가진 악곡을 추출한 결과는 <논매는소리>는 35곡, 발농사요는 25곡, 관악기 구음을 흥내 낸 노래는 11곡, <달구지모는소리>는 10곡으로 총 81곡이었다. 토리를 중심으로 분류해본 결과 수심가토리의 곡은 74곡, 수심가토리변형이 9곡으로 총 83곡이 정리되었다. 박자형태는 3소박 4박자가 177곡으로 전체 악곡 358곡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소박 3박자는 19곡으로 그 수가 매우 적었다.

3. 제재곡의 선정 결과

북한 지역의 특징이 드러나는 기능에 따른 악곡으로는 농산 노동요 <논매는소리>와 <가래질소리>를 선곡하였다. 지리적·지형적 조건에 따라 일의 기능이 달라지고 필요한 음악도 달라지기 때문에(김혜정, 2013) <논매는소리>와 <가래질소리>는 북한 지역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악곡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무뜯는소리/자장가>, <동요-달두달두 밝다>, <가래질소리>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북한 지역의 사투리가 노랫말에 드러난다. 민요의 음악어법이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혜정, 2013)는 것을 고려하여 사투리를 사용한 민요들은 북한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는 민요로 볼 수 있다.

북한지역의 음악적 특징에 따른 악곡으로는 기존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풍구타령>, <싸름>, <금다래꿍>과 새로 발굴한 악곡인 <물레타령>, <논매는소리>, <가래질소리>, <나무뜯는소리/자장가>를 선곡하였다. <풍구타령>, <싸름>, <금다래꿍>은 이미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곡으로 수심가토리를 학습하기에 용이하도록 편곡되어 있으며 수심가토리를 대표하는 곡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풍구타령>은 자진모리장단이어서 시김새 학습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심가토리와

특징적인 시김새를 학습하기 전 단계의 예비 학습으로 3-4학년군에서 제시할 것이다.

교육적 활용을 위한 악곡으로 <우리 형제>, <동요-달두 달두 밝다>, <한알대 두알대>를 선곡하였다. 1-2학년군 통합교과 교육과정에는 음악과에서 제시되지 않은 통일 관련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3학년부터 제시되는 북한 민요를 학습하기 전단계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1-2학년 수준에 맞는 전래 동요를 선곡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제>와 <한알대 두알대>는 현재 통합 교과 교과서에 수록되어있는 악곡으로 <한알대 두알대>는 <황해도 다리빼기>와 같은 곡이다. <동요-달두 달두 밝다>는 기존 교과서에 수록된 적이 있는 <달두 달두 밝다>와 다른 곡이지만 제목과 시작 노랫말이 같다는 것에서 음악적 동질성 측면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단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자진모리장단, 세마치장단, 굿거리장단, 중중모리장단을 고려하여 고루 선곡하였다.

<표 III-1> 선정 악곡 분석

	곡명	토리	출현음	장단	기능
1	논매는소리 /경기도	수심가토리 변형	레미솔라도레	중중모리형	농산 노동요
2	가래질소리 /평안도	수심가토리	레미솔라도레	세마치형	농산 노동요
3	나무뜯는소리 (자장가)/황해도	수심가토리	레미라도레	3박 4박 혼용	가사 노동요
4	다리빼기 (한알대 두알대) /황해도	메나리토리	미라 '라'중지	자진모리형	동작 유희요
5	우리 형제 /평안도	메나리토리	미솔라도레 '라'중지	중중모리형	동작 유희요
6	동요-달두달두밝다 /황해도	반경토리	솔라도레미 '도'중지	단모리형	동작 유희요
7	풍구타령 /황해도	수심가토리	라레미파라도레 '레'중지	자진모리형	가창 유희요
8	물레타령(실жат는 소리)/황해도	수심가토리	레미라도레	굿거리형	가창 유희요

	곡명	토리	출현음	장단	기능
9	싸름 /황해도	수심가토리	레미솔라도	중중모리형	가창 유희요
10	금다래깡 /황해도	수심가토리	레미솔라도	중중모리형	가창 유희요

선정한 악곡은 <논매는소리>, <가래질소리>, <나무뜯는소리/자장가>, <다리빼기/한알대 두알대>, <우리 형제>, <달두 달두 밝다>, <풍구타령>, <물레타령>, <싸름>, <금다래깡>으로 총 10곡이다. 표에서와 같이 농산노동요 2곡, 가사노동요 1곡, 동작유희요 3곡, 가창유희요 4곡의 총 10곡을 선정하였다. 토리는 수심가토리 6곡, 수심가토리변형 1곡, 메나리토리 2곡, 반경토리 1곡으로 교육적 활용을 위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심가토리를 중심으로 선곡하였다. 선곡한 악곡의 장단형을 살펴보면 중중모리형 4곡, 세마치형 1곡, 자진모리형 2곡, 굿거리형 1곡, 단모리형 1곡, 3박과 4박이 혼용된 장단형 1곡으로 장단을 학습할 때 학년군별로 고루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형제>, <풍구타령>, <싸름>, <금다래깡>, <한알대 두알대>는 교과서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고 교육적 활용을 위해 이미 편곡되었으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우리 형제>는 현 교과서에서 자진모리장단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말붙임새의 형태가 전형적인 중중모리장단의 말붙임새를 띠고 있으므로 중중모리장단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교육적 활용을 위해 편곡해야 할 악곡은 <논매는소리>, <가래질소리>, <나무뜯는소리/자장가>, <물레타령>, <동요-달두 달두 밝다>로 총 5곡이다.

4. 교육용 편곡

<싸름>, <금다래깡>, <풍구타령>, <한알대 두알대>는 기존 교과서에 제시되었던 곡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편곡이 되었고, <우리 형제>도 국립국악원에서 교육용으로 편곡하여 제시하였으므로 편곡 없이 교육적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편곡이 필요한 악곡은 「북녘 땅 우리소리 악보자료집」의 농산노동요 2곡 <논매는소리>, <가래질소리>와 가사노동요 1곡 <나무뜯는소리/자장가>, 가창유희요 1곡 <물레타령>, 동작유희요 <동요-달두 달두 밝다>으로 총 5곡이다.

편곡의 기준은 제목, 토리와 음고, 장단형, 시김새, 노랫말의 적절성의 다섯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제목은 강등학(1996)의 민요의 노래명 부여 방안을 참고하여 기능성과 고유성이 드러나는 제목과,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할 수 있는 보편성이 드러나는 제목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둘째, 토리와 음고는 북한 지역을 대표하는 음악적 특징인 수심가토리의 음계와 시김새가 잘 드러나도록 편곡하고자 한다. 음고는 가창자가 부른 음고 그대로 실음 채보되었고 한국 민요에 있어서 음고는 유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김영운 외, 2009)이므로 토리와 주요 출현음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에게 맞는 음역대를 고려하여 독보가 쉽게 이조하고자 한다.

셋째, 장단형은 느린 음악일 경우에 박의 시가(時價)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박자 또한 불규칙해지므로(김혜정, 2013) 뒷 장단을 기준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1장단에 1마디를 기본으로 기보하며 박자표는 박의 개념을 적용하여 4/1, 3/1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넷째, 시김새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음악 요소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참고하고 수심가토리에서 주로 나타나는 시김새인 떠는 소리와 흘러내리는 소리를 표기하고자 한다. 단 충분히 시김새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가(時價)를 가진 음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다섯째, 노랫말은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적합한 수준의 노랫말로 개사할 것이다. 노랫말은 지역의 보편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같은 종류의 다른 노랫말에 둘 것이다. 같은 종류의 다른 노랫말에서 적절한 노랫말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노랫말을 창작하여 개사하고자 한다.

교육적 활용을 위해 편곡한 5편의 악곡 중 <물레타령>과 <위리자장>의 2편의 악곡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레타령>의 원곡 악보는 다음과 같다.



<악보Ⅲ-1> 물레타령 원곡 악보의 일부

<물레타령> 원곡 악보를 살펴보면 음역대가 ‘솔’(G4) - ‘파’(F5)로 채보되어 초등학교들이 노래 부르기에 음역대가 낮은 편이다. 또한 한 음절에 붙는 가락이 많아서 보고 부르거나 듣고 부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장 음역대로 수정하고 한 음절에 붙는 가락을 단순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둘째 단에서 ‘식어머니 들으면 역정을 내겠다’, ‘열녀라두야 어쩔수 없구나’ 등의 노랫말은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신세 한탄하는 내용으로 현재 초등학교들의 공감과 이해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같은 류의 <물레타령> 중에서 이해가 쉬운 노랫말을 차용해 쓰는 것으로 노랫말을 편곡할 필요가 있다. <물레타령>의 음역대, 복잡한 가락, 노랫말을 편곡한 악보는 <악보Ⅲ-2>와 같다.

물레타령

안병문/남/60(1973)/황해북도 름산군 안창리

굿거리장단 김영운 채보
박지영 편보

물레야 돌아라 - 팽 팽 돌아라 -
가 - 락 - 아 - 돌 아 - - - - - 라 - 쌀 쌀 돌아라 -
물레가 락은 - - - - - 쌀 쌀 도는 데 -
기 - - - 지 - 개 - - - - - 만 - 뽕 뽕 나 누 나 -

<악보Ⅲ-1> 물레타령 편곡 악보

편곡 결과, 위와 같이 초등학생들이 부르기에는 ‘솔’(G4)의 음정이 낮기 때문에 ‘레’(D5) - ‘도’(C6)로 완전5도 상행 전조하였다. 한 음절에 붙은 복잡한 가락도 일부는 빼거나 단순화 하였으며, 비슷한 가락의 흐름을 보이는 가락은 원곡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가락으로 통일하여 규칙성을 주었다. 시집살이에 관한 신세한탄으로 적절하지 않았던 노랫말은 평안남도 성천군의 김관보(여)의 <물레타령>의 노랫말 중 한 부분인 ‘가락아 돌아라’로 개사하였다. 또한 12장단을 8장단으로 줄여 교육적 활용도를 높였다.

<우리자장>의 원 제목은 <나무뜯는소리/자장가>로 3소박 4박과 3소박 3박이 혼용되어 있는 수심가토리의 악곡이다. <우리자장>의 원곡 악보는 다음과 같다.

나무뜯는소리/자장가

김이갑/여/69(1973)/황해북도 곡산군 곡산읍

김영운 체보

나 물 게 서 호어 바 두 밀 불 구 우

애 기 를 업 고 호어 위 티 자 장

울 지 마 라 라 울 지 마 라 하

너 애 우 너 이 너 왜 우 너

<악보Ⅲ-3> 나무뜯는소리-자장가 원곡 악보의 일부

<나무뜯는소리/자장가>의 원곡 악보를 살펴보면 3소박 4박과 3소박 3박이 혼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곡의 제목은 기능성만 강조되고 고유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장단과 제목에서 편곡이 필요하다. 편곡한 악보는 악보Ⅲ-4와 같다.

위리자장

세마치장단 김영운 채보
박지영 편보

나 물 깨 - - 서 바 구 널 들 구 - -

애 기 를 업 - 고 위 리 자 장

1.울 지 마 라 우 지 마 라 - -
2.울 지 마 라 우 지 마 라 - -

너 왜 우 - 니 너 왜 우 니 - -
자 장 자 - 장 위 리 자 장 - -

<악보Ⅲ-4> 나무뜯는소리-자장가 편곡 악보

편곡 결과, 제목은 노래의 기능성과 고유성이 함께 드러나도록 <위리자장>으로 바꾸었다. 장단은 3소박 4박 장단이 노래 초반에 3장단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3소박 3박 계열의 세마치형이므로 세마치장단으로 통일하여 편곡하였다. 이 곡도 <행혜양하>와 마찬가지로 세마치장단의 일반적인 율격이 아닌 2장단에 4·4 조가 붙는 형태이다. 또한 원곡 채보는 18장단으로 교육적 활용이 어려우므로 12장단으로 줄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IV. 북한 민요 제재곡의 교육적 활용 방안

1. 북한 민요 제재곡의 학년별 위계화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즐거운 생활”과 “음악과”의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를 참고하여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과서와 음악교과서의 제재곡으로 선정한 북한 민요 10곡을 학년별로 배치하고자 한다.

<표 IV-1> 북한 민요 제재곡의 지도학년 선정

제재곡	음악 요소 및 개념	성취 기준	지도 학년
한알대 두알대	장단, 박, 말붙임새	■ [2즐01-01]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 [2즐07-02] 남북한에서 하는 놀이를 하고, 통일 을 바라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 [2즐03-01] 가족 구성원이 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고마운 마음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1-2 학년군
우리 형제			
달두 달두 밝다	장단, 말붙임새, 시김새	■ [4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 나 악기로 연주한다. ■ [4음01-02]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 ■ [4음01-03]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 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든다.	3-4 학년군
우리자장			
풍구타령	장단, 장단꼴, 장단의 세	■ [4음01-04] 제재곡의 리듬꼴이나 장단꼴을 바꾸 어 표현한다.	3-4 학년군
상사소리	장단, 시김새, 여러 지역의 토리	■ [6음01-01]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며 노래 부르거 나 악기로 연주한다. ■ [6음01-02] 악곡에 어울리는 신체표현을 한다. ■ [6음01-03] 제재곡의 노랫말을 바꾸거나 노랫말 에 맞는 말붙임새로 만든다. ■ [6음01-04] 제재곡의 일부 가락을 바꾸어 표현한 다. ■ [6음01-05]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을 음악으로 표현한다. ■ [6음01-06]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노래 부르거나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악기를 연주한다.	5-6 학년군
물레타령			
행혜양하			
금다래궁			
싸름			

1-2학년군은 「음악과」가 아닌 「즐거운 생활」로 음악적 요소와 개념은 활동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2학년군의 성취기준 중에서 「[2즐07-02] 남북한에서 하는 놀이를 하고,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북한 민요를 통해 통일 대비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서는 통일 관련 성취기준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른 예술 영역 및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통일 대비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IV-2> 타 교과 연계 통일 교육 관련 성취기준

교과명	타 교과 성취 기준	지도학년
즐거운 생활	■ [2즐07-02] 남북한에서 하는 놀이를 하고,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1-2학년군
바른 생활	■ [2바07-01] 우리와 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 의지를 다진다.	1-2학년군
슬기로운 생활	■ [2슬07-02]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다.	1-2학년군
도덕과	■ [4도03-03] 남북 분단 과정과 민족의 아픔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 의지를 기른다. ①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은 무엇이며, 통일을 위해 어떻게 하면 나라사랑을 위한 실천 의지를 기를 수 있을까? ② 북한이탈주민을 배려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통일 의지를 기를 수 있을까?	3-4학년군
사회과	■ [4사04-06]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문제(편견, 차별 등) 및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3-4학년군
	■ [6사01-01]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 지니는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토 사랑의 태도를 기른다.	5-6학년군
	■ [6사04-06]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이해하고, 그 피해상과 영향을 탐구한다.	
	■ [6사08-02]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지구촌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그려 본다.	

1-2학년군에서는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에서, 3-4학년군에서는 도덕과와 사회과에서, 5-6학년군에서는 사회과에서 통일 교육 관련 성취기준을 찾을 수 있다. 사회과의 [4사04-06]과 [6사01-01]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지 않으나 북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북한을 포함한 국토 사랑의 태도를 기르는 것으로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2. 북한 민요 제재곡의 교육 방안

교육 방안 개발의 기준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연구이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음악 요소 및 개념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제재곡별 교육 방안을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민요와 비교를 통한 음악적 동질성 측면과 음악의 정서적 의미 측면, 북한 민요 고유의 음악적 특수성 측면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을 나누어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가. 음악적 동질성 측면에서의 교육 방안

북한과 남한의 민족적 동질성 측면에서는 <한알대 두알대>, <달두 달두 밝다>, <상사소리>를 제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3> 음악적 동질성 측면의 교육 방안

	제재곡	음악 요소 및 개념	주요 활동	지도 학년
음악적 동질성	한알대 두알대	장단, 박, 말붙임새	● 친구와 다리빼기 놀이하며 노래 부르기 ■ [2줄07-02] 파주 다리빼기와 황해도 다리빼기의 놀이 비교하기	1-2 학년군
	달두 달두 밝다	장단, 말붙임새	● 노랫말의 말붙임새 익히기 ● 장단의 기본박을 손뼉 치며 노래 부르기 ● 남한의 전래동요와 노랫말 비교하면서 통일에 관심 갖기	3-4 학년군
	상사소리	장단, 시김새, 여러 지역의 토리	● 중중모리장단의 세를 살려 장구로 연주하며 노래 부르기 ● 수심가토리의 특징을 알고 시김새 살려 노래 부르기 ■ [6사04-06] 북한 지역의 <상사소리>와 경기도의 <상사소리> 비교하며 6.25전쟁으로 인한 문화적 피해상 탐구하기	5-6 학년군

북한과 남한의 민족적 동질성 측면에서는 <한알대 두알대>, <달두 달두 밝다>, <상사 소리>를 제시하였다. <한알대 두알대>는 북한과 남한의 놀이 비교를 통하여, <달두 달두 밝다>는 같은 노랫말로 시작하는 남한의 전래 동요와 비교를 통한 음악의 동질성을 경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구성하였다. <상사소리>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상사소리>가 북한에서도 전승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한의 <상사소리>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음악적 동질성을 경험하도록 한다.

나. 음악의 정서적 측면의 교육방안

음악의 정서적 의미 측면에서는 <우리 형제>, <위리자장>, <금다래꿍>을 제시하였다. 내용을 정리하면 표Ⅳ-4와 같다.

<표 Ⅳ-4> 음악의 정서적 의미 측면의 교육 방안

	제재곡	음악 요소 및 개념	주요 활동	지도 학년
음악의 정서적 의미	우리 형제	장단, 박, 말붙임새	●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노래 부르기 ● 우리 가족을 소개하는 노랫말로 바꾸어 노래 부르기 ■ [2바07-01] 가족과 떨어져 사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통일의 필요성 이야기하기	1-2 학년 군
	위리 자장	장단, 시김새, 한배	● 세마치장단의 기본박을 무릎장단으로 치며 노래 부르기 ● 시김새 살려 노래 부르기 ■ [4도03-03]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통일의 좋은 점 알아보기	3-4 학년 군
	금다래 꿍	장단, 시김새, 여러 지역의 토리	● 시김새 살려 노래 부르기 ● 수심가토리의 구성음과 특징 알기 ■ [6사04-06]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해 전승되는 북한의 국악 관련 문화재 알아보기	5-6 학년 군

음악의 정서적 의미 측면에서는 <우리 형제>, <위리자장>, <금다래꿍>을 제시하였다. <우리 형제>는 형제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노래로 ‘[2바07-01] 우리와 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알고, 통일 의지를 다진다.’의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북

한과 가족, 형제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우리자장>은 자장가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있는 노래이다. 이 노래를 불러보는 활동을 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를 공감해보고 통일을 하면 좋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금다래깡>은 북한 이탈 주민들에 의해 전승되어 채록된 노래로, 이들에 의해 남한에서 전승되고 있는 북한의 국악 관련 문화재를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다. 음악의 특수성 측면에서의 교육 방안

북한 민요의 음악적 특수성 측면에서는 <풍구타령>, <물레타령>, <행혜양하>, <싸름>을 제시하였다. 내용을 정리하면 표 IV-5과 같다.

<표 IV-5> 음악의 특수성 측면의 교육 방안

	제재곡	음악 요소 및 개념	주요 활동	지도 학년
음악의 특수성	풍구타령	장단, 장단꼴, 장단의 세, 시김새, 여러 지역의 토리	● 수심가토리의 구성음을 알고 시김새 살려 노래 부르기 ● 장단을 연주하며 노래 부르기 ● 장단의 세를 살려 연주하기 ● 노래에 어울리는 신체표현하기 ● 북한 민요를 지역의 특성과 연관 지어 이해하기 ■ [6사08-02] 통일 대비 측면에서 국악의 역할 이야기하기	5-6 학년군
	물레타령			
	행혜양하			
	싸름			

위의 네 곡은 모두 수심가토리로 되어 있어 북한 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핵심 개념으로 다루는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풍구타령>과 <행혜양하>는 자진모리장단과 세마치장단으로 떠는 소리의 시김새를 충분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흘러내리는 소리와 토리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 <물레타령>은 북한 민요의 특수성을 교육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토리는 물론이고 황해도, 평안도 지역의 길쌈놀이와 연계할 수 있고, 노랫말이 북한 지역에서만 드러나는 3·3조의 율격을 보이고 있어서 북한 민요의 음악적 특수성이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이 음악적 동질성 측면과 음악의 정서적 의미 측면, 음악적 특수성 측

면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을 나누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목표는 각 제재별로 음악적 목표와 비음악적 목표로 나누었으나 비음악적 목표에 따른 주요 활동은 전체 활동에 1/3 정도로 음악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에 더 비중을 두었다. 첫째, 음악적 동질성 측면에서는 <한알대 두알대>로 북한과 남한의 놀이 비교, <달두 달두 밝다>로 남북한 전래동요의 노랫말 비교, <상사소리>로 남북한이 같은 종류의 노래를 부르는 보편성으로 동질성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둘째, 음악의 정서적 의미 측면에서는 <우리 형제>, <우리 자장>으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통일의 좋은 점과 필요성 생각해보기, <금다래쭈>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해 진송되고 있는 북한의 음악 관련 문화재 조사하기 등으로 각 제재곡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공감하도록 하였다. 셋째, 음악적 특수성 측면에서는 <풍구타령>, <물레타령>, <행혜양하>, <싸름>으로 북한 민요 고유의 음악적 특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서 통일 대비 측면에서 국악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현 교과서에 북한 민요의 수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북한 민요 고유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곡 개발이 필요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 교육과정에도 포함이 되었지만 음악과에서는 통일 교육에 대한 노력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교과서 수록 제재곡 중 북한 민요 교육에 적합한 곡을 선정하고 북한 민요를 새롭게 발굴·편곡하여 2015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음악 요소 및 개념을 고려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민요의 교육 현황 및 자료 검토에서는 초등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관련 제재를 분석하고 기존에 채보된 북한 민요 자료를 검토하였다. 2009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와 음악교과서, 2015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관련 제재의 요소 및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관련 제재는 난이도에 따른 체계성이 출판사마다 달랐고 각 제재곡에 대한 활동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또한 북한 민요의 자료 검토에서는 「북녘 땅 우리소리 악보자료집」,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집」, 국립국악원 발간 악보자료집 5권 등을 분석하여 초등학교에 적합한 북한 민요를 선곡하기 위한 기준을 세웠다.

선곡 기준은 북한의 지역적 특징이 드러나는 악곡, 북한 지역의 특징적인 음악

요소를 가진 악곡, 초등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악곡으로 삼았다. 위의 세 가지 선곡 기준에 맞추어 기존 제재곡 3곡과 새로 발굴한 7곡까지 총 10곡의 북한 민요가 선정되었다. 새롭게 발굴한 제재곡과 교육적 활용 가치가 높은 기존 제재곡 10곡 중 실음 그대로 채보한 경우 초등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교육적 편곡을 하였다.

교육적 편곡의 기준은 기능성이나 고유성이 드러나는 제목으로 수정하기, 북한 지역을 대표하는 토리인 수심가토리와 시김새가 잘 드러나도록 수정하기, 불규칙적 장단형일 경우 규칙적인 장단형으로 통일하기, 초등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랫말로 개사하기 등으로 삼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육과정 요소와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적 활용 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선곡한 북한 민요 제재곡을 학년별로 위계를 정하여 각 제재곡별로 적절한 성취기준과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통일 대비 교육을 위해 음악과 외 타 교과와 연계하여 학년군의 수준에 맞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 방안은 음악적 동질성 측면, 음악의 정서적 의미 측면, 음악의 특수성 측면으로 유형을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교육 방안과 유형별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과서와 음악교과서의 북한 민요 제재곡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 민요는 다른 지역의 민요에 비해 자료가 부족하고 선행연구 또한 그 수가 매우 적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집되어 채보된 북한 민요를 총정리 하였다는 점, 북한 민요의 지역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초등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새로운 악곡을 발굴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곡하였다는 점, 음악과 교육과정을 넘어서 타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일 대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 제재곡만 발굴하였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제재곡을 발굴하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공립기관 차원의 통일 대비 국악 교육 방안이 개발 될 필요가 있다. 각 학교급별, 학년군별로 학교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통일을 겪을 직접적인 세대인 학생들에게 북한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등학 (1996). **한국민요의 현장과 장르론적 관심**. 서울: 집문당.
- 강미정 (2007). 교육적 활용을 위한 충청북도 민요의 음악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고정희, 김종철, 구본관, 이현길, 윤구희, 김호태, 이은정, 조진수, 차경미, 문찬란, 김진아, 심미진 (2015). 남북한 초·중·고등학교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 **국어교육연구**, 36, 1-49.
- 교육부 (2015). 음악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서울: 저자.
- 국립국악원 (1998). **국악교육안내서 1 민요 이렇게 가르치면 제맛이나요**. 서울: 저자.
- _____ (1999). **국악교육안내서 2 향토민요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서울: 저자.
- _____ (2002). **국악교육안내서 3 전래동요**. 서울: 저자.
- _____ (2002). **평평 장서방**. 서울: 저자.
- 김영운, 김혜정, 이진원 (2007). **북녘 땅 우리 소리 악보자료집**. 서울: 민속원.
- 김영운, 김혜정, 최현 (2009). **교육용 국악 표준 악보(향토민요 100선)**. 서울: 국립국악원.
- 김영은 (2007). <조선민요 1000곡집> 분석을 통한 함경도 민요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현정 (2012). 초등학교 음악 제재곡 개발을 위한 향토 민요 연구. **한국민요학**, 36, 135-171.
- _____ (2014). 초등학교 음악 제재곡 개발을 위한 노동요 연구. **음악교육연구**, 43(1), 46-62.
- 김현희 (2014). 남·북한 초등학교 국악·민족음악 교육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김혜정 (2007). 통일대비 국악교육을 위한 북한민요 연구. **한국음악연구**, 41, 5-21.
- _____ (2013). **민요의 채보와 해석**. 서울: 민속원.
- _____ (2015). **국악교육의 지향과 민요의 교육적 활용**. 서울: 민속원.
- 류아름 (2012). 북한민요 연구-〈노 젓는 소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박지영 (2017). 통일 대비 초등학교 교과서의 북한 민요 제재곡 개발 연구-통합교과 교과서와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박찬석 (2015). 도덕과의 인성교육과 통일교육 융합에 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47, 223-248.
- 박찬석 (2017). 2016년 이후 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도덕윤리과교육연구**, 54, 265-289.
- 배인교 (2012). 북한 고등중학교 민요 교육의 음악적 고찰. **한국민요학**, 35, 61-94.
- 송명현, 김두정, 김소영, 이운소 (2016). 초·중등학교 통일 교육과정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교육문제연구**, 34(3), 1-20.
- 유지숙 (2007). <간·자진아리>에 대한 연구-북한 민요 <룽강기나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윤철기 (2016). 남북한 사회통합의 현안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정치정보연구**, 19(1), 417-453.
- _____ (2017). 한반도의 평화문제와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의 모색. **정치정보연구**, 20(1), 81-119.
- 이윤정 (2015). 평창군 민요의 전승 활성화 방안. **국악교육**, 39, 143-159.
- 이인재, 박균열 (2012). 초·중등학교급별 교사와 학생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윤리교육연구**, 28, 63-90.
- 정미경, 김유정 (2008). 통일을 대비한 초등실과 가정생활교육 방안(Ⅲ) -식생활 및 주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1(2), 157-177.
- 조경숙 (2007). 향토민요의 교육활용 방안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민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조빛차 (2015). 미술교과 내에서의 통일대비 교육의 필요성 및 교수학습 방안.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최성룡 (2011). 남·북한과 연변지역의 경서도 민요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2011 통일교육지침서 초등학교용**. 서울: 저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임석재 채록 한국구연민요자료집**. 서울: 민속원.
- 한희정 (2003). 통일 대비 음악교육을 위한 북한 음악의 이해: 민요와 개량악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함규진 (2015).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초등학교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입법과정책**, 7(1), 83-105.
- 함규진, 이신애, 장세영 (2015).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한 초등학생의 이해와 통일교육의 과제. **초등도덕교육**, 50, 335-375.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Folk songs for Elementary School
Textbook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 Focused on integrated subject textbooks and
music textbooks-

Park, Ji Young

This study aims to develop NK folk songs to be included in integrated subject textbooks and music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and present an educational method. To that end, NK folk songs collected in music textbooks and integrated subject textbooks, which are currently used in elementary schools, were analyzed, along with five printed music books published by the National Music Institute and NK folk songs gathered in 「Music data book of NK folk songs」 and 「Korean folksong data book selected and put on record by Im Seok-jae」. Out of these songs, a total of 10 songs were selected and arranged for educational use. In addition, the NK folk songs was arranged according to the level of each grade group and the activitie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were presented in conjunction with other curricula.

Key words: preparation for unification, NK folk songs, elementary school textbook, music textbook, finding folk songs

투고일: 2018년 11월 30일, 심사(수정): 2019년 1월 17일(1월 22일), 게재확정일: 1월 25일